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음 12월 6일) 제19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군산~석도 카페리 운항횟수 증편

주 3회에서 주 6회로
대중국 화물 수요 대응
군산항 활성화 기여할 듯



전라권에서 유일한 한·중 카페리 항로인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 항로 증편이 확정된 가운데 19일 송하진 도지사가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석도카페리 관계자 및 국제여객터미널 근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점검을 갖고 있다.

군산과 석도(중국 산둥)간 카페리 항로가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된다.

군산시는 지난 17~18일까지 중국 운남성 평명사에서 개최된 '제 25회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중국 석도 카페리 운항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페리 운항 횟수가 주 6회로 증편됨에 따라 대중국 화물 수요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물동량 및 중국 관광객 증가로 군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2008년 4월 취항한 군산항 한중카페리는 현재 주3회 운항하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드여파에도 불구하고 16년 대비 여객이 8%, 화물은 3%가 증가했지만, 선박(화물 실는 공간) 부족으로 2천 TEU 이상의 화물이 타 항만으로 이탈이 되었고, 한중카페리 항로가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어 그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횟수 증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군산시는 전북도와 지역자치권과 공조하여 2016년도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항로 추가투입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투입시기 등은 차기 회담에서 논의한다'는 양국간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진행된 해양수산부-지자체 해양수산정책협의회 및 해수부장관 군산항 방문 시 지속적으로 항차 증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마침내 항차 증편 확정을 이뤄냈다.

카페리 선박 2척이 운항될 경우 ▲5,969억 원의 경제효과 발생 ▲신규 일자리 1,142개 창출 ▲국제여객선터

미널 및 인근 새로운 상권 형성 ▲일 평균 500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며, 근대 역사관광지구 및 고군산군도의 도내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석도국제훼리(주)는 오는 2월 초에 2만 톤급 신조선 뉴시디오픈 호를 인수하여 운항할 예정이며, 항차 증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내로 신조선 1척

을 추가로 발주하고 선박이 건조되는 동안 기존에 운항되던 시다호호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향후 군산~석도 간 카페리의 안정적인 운항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포스트세일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문 기자

참여연대, MB진술 추가 제출... "실소유주 따로 있다 증거"

참여연대가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가문건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 (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를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03년 4월 작성된 것으로 BBK 소송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문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BBK와 MAF(펀드)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뱅크와 BBK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 경위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증거자료에서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

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호영 특검이 수사결과에서 다스 실소유자 이상은이 다스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료에서 이상은이 다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있다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한 것은 본인 진술로 이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를 직접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문건에 기술된 대목 중 L&K뱅크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0년 2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라고 서술된 부분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는 정 전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다스의 BBK 190억원 투자가 이명박과 상관 없이 이뤄졌다는 설명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이 진술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친부·내연녀 학대 견지도 못하고 숨져

검찰, 고준희 사망 관련

'고준희(5)양 안매장 사건'과 관련, 준희양은 친부와 내연녀의 지속적인 학대로 견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은 저하증 악화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의 진술에 따라 사망 직전 준희양은 수포가 얼굴에서부터 몸 밑으로 퍼졌고, 발목부터는 부기가 종아리 위까지 올라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고씨와 이씨는 "발로 준희양 무릎과 발목, 등을 여러 차례 밟은 적이 있다"면서 "준희양이 발목 복숭아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몸에 수포가 생기고 걷기 힘들 정도로 기력을 잃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초 고씨가 준희양의 복숭아뼈를 수차례 밟아 무릎 피하 출혈까지 이어졌고, 갈비

뼈가 사망 전날에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준희양 사망 시점도 안매장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오전 8시에 서 오전 9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준희양은 등쪽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무릎 연골 사이에선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구속 만기인 오는 25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와 이씨,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선 '쇼크 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체가 부패가 심한 데다 미라화돼서 정확한 사인은 밝힐 수 없다. 쇼크 사 자체는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외력에 의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소견이 나온 만큼 혐의 입증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 등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사람과도시
공적서전주